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6월 20일(화) 15시 30분: 사무국 주간회의
- 6월 23일(금) 16시 30분: 사무국 월례회의

■ 연구원 소식

56차 문화강좌 (6월 17일)

지난 토요일(6월 17일)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에서 김승수 전북대 특임교수(前 전주 시장)를 모시고 56차 문화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문화강좌는 "탁월한 공공장소는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인간의 문명을 결정짓는 도시의 형태가 현대에 이르러 인간의 행동과 사고까지 지배하는 모습으로 바뀐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의 수준은 시민 삶의 수준과 일치하는데 보다 발전적인 삶을 위해서는 권력 중심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서가가 제일 긴 아중호수 도서관을 비롯해 전주시 청사 내 책기둥 도서관, 덕진공원에 있는 한옥 영화정 도서관, 건지산과 학산에 있는 숲 속 도서관 등의 사례를 둘러보며 도서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시민의 삶을 짓고 있다는데 공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56차 문화 강좌 이모저모



■ 역사속의 오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 2004. 6. 22

2004년 6월 22일 오전 10시 20분경 (현지 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팔루자쪽으로 35Km 떨어진 도로변에서, 이라크 무장단체 조직원들에게 납치되었던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 씨의 시신이 발견된다.

이라크 주둔 연합군 대변인 '마크 키미트 준장'은 "김 씨의 시신이 바그다드 서쪽 35km 지점의 도로변에 자동차에서 내던져진 것 같은 모습으로 발견됐다"라고 밝혔다.

김선일 씨는 이라크 주둔 미군에 물자를 공급하는 군납업체 가나무역의 직원으로 5월 31일 오후 이라크 현지직원 1명과 함께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바그다드에서 200km가량 떨어진 '캠프 리브지'(RIBGEE)를 떠난 후 소식이 두절되었다. 악명 높은 국제적 테러리스트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가 이끄는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유일신과 성전) 조직원들에게 납치당한 것이었다.

김 씨의 납치 사실이 세상에 밝혀진 것은 6월 20일 무장단체가 한국군 파병철회를 요구하며 김 씨를 위협하는 장면을 '알 자지라' 방송이 보도한 후였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가나무역의 김천호 사장이 납치 사실을 한국대사관에도 알리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납치단체와 비밀리에 석방 교섭을 해왔기 때문에 납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무장단체는 김 씨 석방 조건으로 20일 새벽부터 '24시간'의 시한을 주며 "한국군이 떠나지 않으면 참수하겠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파병원칙을 고수한다'고 발표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정부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동 각국 외교장관 등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반기문 당시 외무장관과 주카타르 대사는 알 자지라 방송에 출연해 김 씨의 석방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이런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었다.

김선일 씨가 살해되고 난 뒤 한국에서는 이라크 추가 파병을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랐고, 당시 야당 대표는 7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아래와 같은 말을 남기며 지지자들의 박수를 한 몸에 받는다.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이는 9년 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이듬해인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299명이 숨지고 5명이 영구 실종되는 참사 이후 아래와 같이 말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